

“학생들 지금도 ‘도가니’에 방치돼 있다”

■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교육청·시·구청 7년째 인화학교 책임 전가 학교장 “학생들 학업 충실...정상 운영” 강변

지난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직원에 의한 청각장애학생들의 성폭행 사건인 인화학교 사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위원들은 “부모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영화 ‘도가니’로 해당 학교에 대한 폐쇄여론이 들끓는 점을 의식한 듯 3시간여 동안 이 문제가 집중 성토됐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인화학교 학생들이 지금도 ‘학교가 아닌 곳’에 방치돼 있다”며 “광주시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인사로라도 특수교사를 고용해 인화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학교에 와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교육청이) 징계 심의시 엄정한 분위기로 조성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사건이 알려졌던 2005년 그 당시에도 책임 있

는 교육청, 시·구청 등이 책임 전가에 급급했고, 지금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책임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은 “이제 와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자성의 태도로 재발 방지책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화학교 현 고교수 교장(직무대행)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폭행 사건 이후) 학생들은 학업에 충실하고 학교는 학사운영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편, 교과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장 교육감이 (국감에서) 인화학교 일부 교사의 복직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시교육청이 다시 이를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 인화학교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착잡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립대는 더 면밀한 검토와 섬세한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시간을 두고 지역 대학의 특성을 함께 배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직선제 폐지 수업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구조조정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유성업 의원은 “직선제 폐지 등 결국 잘 듣는 대학은 처음부터 면죄부를 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평가결과에 근거해 하위 대학을 본보기 삼아 강제로 구조개혁을 추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립대를 길들이기 위함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대 구조조정 법안화에 대한 질타에 대해 나머지 질의는 현안에 대해 총장의 의견을 묻거나 지난해 지적한 사안에 대한 재검 및 점검, 심지어 피감기관에 대한 칭찬마저 이어지는 등 오전 교육청 국감의 영향으로 1시간 늦게 시작한 전남대 국감은 2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총장 직선제 폐지 등 추진 국립대 길들이기 아니냐

■ 전남대

지난 30일 오후 전남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대 구조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오전에 열린 인화학교 국감에 집중했다던 임기 중 마지막 국감인 탓인지, 날카로운 질문이 거의 없어 다소 맥빠진 분위기를 보였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민주당 김

영진 의원은 “지난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38개 국립대를 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 구조조정에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수도권 중심주의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지방대에 일방적으로 같은 잣대를 들이댄 교과부의 관점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면 구조조정 대학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공립총장협의회 회장인 김윤수 전남대 총장은 “대부분

장휘국 “교육자치 역행” 반대 장만채 “고비용 저효율” 찬성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입장차

광주시·전남도교육감이 정치권에 서 논의 중인 교육감직선제 폐지론에 대해 각각 반대·찬성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휘국 시교육감은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 탄생한 것이 직선제”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직선제 폐지 여부를 물은 데 대한 답이다.

반면, 장만채 도교육감은 “현재 선거제도도 고비용 저효율이다”며 “직선제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와의 공동등후보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반대한다”고 선을 그였으며 장휘국 교육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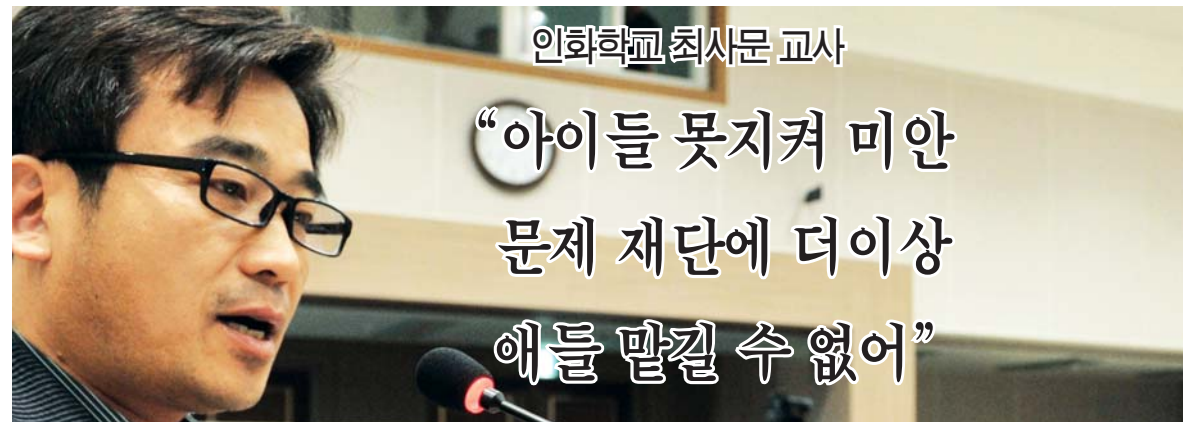
교육자치를 저해하거나 역행하는 요소로 장휘국 교육감은 정부의 과도한 인사권 제약과 간섭 등을 꼽았다.

장만채 교육감은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는 지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은 정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와 관련, 광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선거는 학생들이 아니라 당선자와 그 추종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제는 진정으로 학생교육을 위해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며, 대안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공모와 검증 등을 통한 임명제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학생을 지켜내지 못한 교사로서 사죄드립니다. 과거처럼 이 문제(인화학교 성폭행 사건)가 여론만 들끓다 사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 30일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인화학교 최사문(48) 교사에 게 시선이 집중됐다. 최 교사는 지난 2005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진실 규명에 나섰지만 업무방해, 폭위유지 위반 등 10가지 ‘죄목’으로 2007년 9월 파면됐다가 소청심사 등을 거쳐 2008년 6월 복직된 인화학교 사태의 주인공이다.

최 교사는 이날 인화학교와 해당법인의 대변인격으로 국감에 참석하고 효수 교장 직무대행과 함께 증언대에 서는 용기를 보여줬다.

그는 “그 문제(성폭행 사건) 후 법인(우석) 운영자들의 철학과 마인드가 바뀌기를 기대했으나, 변화된 것 없고 더 심화됐다”며 “뜻있는 선생님들이 법인에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석은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최 교사는 “2005년 성폭행 사실을 접한 뒤 청와대를 비롯 국가기관에 각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관심을 가

지고 해결하려는 어떤 기관도 없었다”며 “과거처럼 뜻있는 교사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참고인으로 출석키로 한 뒤 우리 아이들이 당한 참담한 고통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우리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영기자 penfoot@

빛의만평

- 김중두

가려져서 당최 보이지 않는구나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잠들기전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 중에 5회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 또는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경우 등은 불면증을 의심하여야 한다.

불면증은 말 그대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수면이 박탈당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불면증은 '입면장애', '수면유지장애', '조기각성' 으로 분류한다. 입면장애는 잠들기까지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말하며, 수면유지장애는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중에 5회 이상이거나 깨어있는 상태가 30분이상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조기각성은 전체 수면이 6시간 이하이면서 잠을 깨면 다시 잠자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한의학에서는 수면의 기전을 기의 운행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가 낮에는 인체의 밖을 순행하므로 잠이 오지 않고, 밤에는 기가 인체 안으로 들어감으로 잠을 자게 되는데 불면증은 이러한 정상 생리에 이상이 생기기 오는 것이다.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된다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적 최선술 다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불면의 원인을 크게 다섯가지로 나눈다.

- (1) 사려과다(思慮過多)**
생각을 과하게 하여 비장(脾臟)과 심장(心臟)이 손상되어 피(血)를 소모시키는 경우이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부인의 산후나 오랫동안 병을 앓은 환자, 노인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때는 꿈이 많고 자주 깨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잘 잊어버린다. 또 입맛이 없거나 몸이 권태롭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피곤해 한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에게 많다.
- (2) 음허화열(陰虛火動)**
장기간 영양부족이 지속되거나 오랜 병, 여성호르몬의 부족, 지나친 성교로 신장(腎臟)의 기능이 손상되어 상화가 위로 올라와 심장의 화를 자극하므로 정신이 안정되지 않아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이다. 이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으며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입이 마른다. 발바닥이 뜨겁거나 변비가 생기며 간혹 몽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 (3) 심당허겁(心虛怯)**
몸이 겁이 많거나 크게 놀란 후에 심장과 담이 약해져 발생한다. 이때는 가슴이 심하게 뛰고 매사에 잘 놀라며 평소에도 무서움이 많아 혼자 있기 싫어하거나 불안 초조감이 많이 나타난다. 자는 동안에도 꿈이 많고 쉽게 깨는 것이 특징이다.
- (4) 간양상행(肝陽上亢)**
스트레스 특히 분노를 오래 참는 것으로 인해 간경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성격이 조금하고 쉽게 화를 내며 눈이 충혈되고 입이 쓰며 갈증이 난다.
- (5) 위중불화(胃中不和)**
음식을 잘 조절해 먹지 않아 소화불량이 되어 명치끝이 답답하고 괴로워 편히 눕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다.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 등에서 볼 수 있다.

불면증 치료

생각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고, 가슴이 답답한 경우는 가슴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몸이 피곤할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피로를 풀어줘야 하고, 신체중상이 심한 경우는 대장치료를 통해 신체중상을 우선 개선 시켜준다. 만약 정신질환의 경우는 질한 치료를 먼저해야하며, 노인인 경우는 몸의 원기를 보충해 줌과 동시에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다. 증상에 맞는 약물요법과 침구요법을 주로 활용한다.

한방 약물요법으로는 사려과다로 오는 경우는 귀비탕을, 음허 화열로 오는 경우는 청심연자탕이나 가미소요산, 심당허겁으로 오는 경우는 가미 온림탕을, 위중불화로 오는 경우는 향사탕위탕을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처방이다. 일반적인 통용방(通用方)으로는 산조인탕을 사용한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갱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건물 옆 매표기 센터가)

침 · 뜸 · 부항은 한의사에게! 한약은 한의원에서!